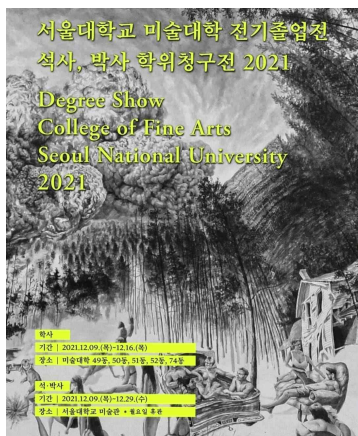


1 본회소식



2021 모교 졸업전 우수상 시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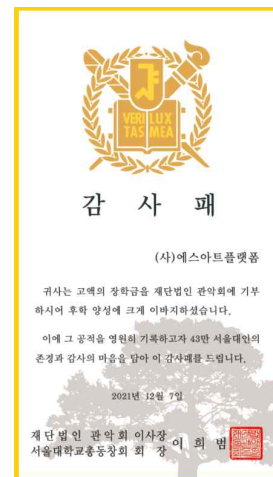


본회 권영걸(69응마사 진 뒷줄 오른쪽에서 두 번째) 회장은 지난 12월 9일 모교 예술복합연구동(74동) 오디토리움에서 진행된 졸업전시 우수자 시상식에서 동창회장상을 수여했다.

이번 동창회장상 수상자는 이은호(15동양), 장재경(16서양), 이재석(15조소), 전희영(17금속공예), 이규림(15산업디자인), 김수연(17도자공예), 손석민(17시각디자인), 이호경(17영상매체)으로 총 8명이다. 본회는 그동안 졸업전시 우수상 시상자들에게 상장 및 부상으로 장학금을 지급해왔으나, 전시 기회를 제공하여 졸업 후 작품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고 이를 통해 다양한 동문들과 교류하게끔 유도하는 것이 졸업생에게 보

다 직접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 금년부터는 부상으로 수상자에게 특별전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날 권회장은 수상 축하를 통해 "서울대학교 미술대학은 1946년에 국내 최초의 미술대학으로 설립되어 대한민국 미술교육의 모범을 보여왔으며, 우리나라와 세계 미술계를 이끌어가는 리더들을 배출해왔다. 졸업과 동시에 드디어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동문이 되는 것"이라며 동문의 의미를 강조하였다. 이어 코로나19로 인해 예술계가 침체된 상황에도 빌라다르전, 아트온더라인, 동문 아카이브 구축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해온 본회를 소개하고 동창회 행사 참여를 독려했다. 또한 "내부의 논 끝에 내년에 있을 빌라다르 등의 동창회 기획전에 공간을 마련해서 특별 전시를 여는 제도를 마련하기로 했다"며 올해부터 바뀐 수상 제도를 소개하였다. 한편 이번 학사 졸업전시는 지난 12월 9일부터 16일까지 8일간 모교 49동, 50동, 51동, 52동, 74동에서 열렸으며, 석박사 학위청구전은 오는 12월 29일까지 서울대미술관에서 관람할 수 있다.

총동창회에 장학금 1천만원



본회는 지난 11월 SNU장학빌딩에서 열린 '2021 서울미술 나눔 장학기금마련전'을 통해 마련된 수익금 중 1천만원을 본회 산하 비영리법인 에스아트플랫폼(이사장 권영걸) 이름으로 지난 12월 7일 서울대 총동창회 산하 (재)관악회(이사장 이희범)에 전달했다. 장학기금마련전은 본회와 서울대학교총동창회가 공동주최하고 (사)에스아트플랫폼이 주관한 행사로, 약 200명의 동문작가들이 300점에 달하는 작품을 출품해 성황리에 개최됐으며, 개막식 이전에 작품 구매를 예약하거나 전시 중 전화상으로 구매요청을 하는 등 서울대학교 동문들의 큰 관심과 성원으로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 수익금 중 나머지는 본회 창작지원사업에 쓰일 예정이다.

모교 소식

철거예정인 전통가마



서울대미대(학장 김성화) 52동과 220동 사이에 있는 전통가마가 철거된다. 이 가마는 90년대 중후반에 수 업용으로 지어진 국내에 몇 없는 전통가마다. 공예전

공 김범상 조교는 “전통가마는 가스가마에 비해 소성시간이 오래 걸리고, 220동이 들어서면서 전통가마의 사용 빈도가 점차 줄어 마지막 소성은 2019년 공예주간에 있었다”며 철거 이유를 설명했다. 시설기획과 백인홍 행정관은 “위급상황시 소방차 진입이 가능하도록 차로와 보행로를 분리하기 위해 가마를 철거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공사후 현재의 전통가마 위치에는 도로가 들어서고 본래 도로가 있던 필로티 하부에는 현대식 가마가 지어질 예정이다.

서울대 소식

정원 줄이고 9월학기제 · 3학기제 도입추진

서울대학교(총장 오세정)가 장기 발전 계획의 일환으로 학부생 정원 감축, 9월 학기제와 3학기제 도입, 학교채 발행 등을 추진한다. 지난 12월 13일 서울대가 공개한 ‘서울대학교 2022~2040 장기발전계획 중간보고서(안)’에 따르면 서울대는 장기 발전을 위한 중점 추진 과제 총 6개를 선정했다. △전공·학과 간 장벽 없애기 △입시제도의 획기적 변화 △디지털 대전환시대를 주도할 교육 연구 프로그램 △전반적인 국제화 △사회공헌 확대 △재정과 거버넌스 개선 등이다. 보고서에는 위기 극복을 위한 중점 추진 과제 중 하나로 학부 정원을 감축하는 방안이 담겼다.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하고, 그 타격이 지방대에 집중되지 않도록 학부정원 감축에 동참한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학사구조 개혁 방안으로 9월학기제, 3학기제 도입도 논의 중이다. 나아가 서울대는 학교채 채권 발행도 검토 중이다. 2040년까지 재정 규모를 현재의 2배 수준인 연 3조 원대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다. 서울대는 관악학생생활관(기숙사) 재건축, 경전철 서부선 등 대형 프로젝트 자금 조달에 학교채 발행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기숙형 대학’이라고 불리는 거주형 대학 도입도 검토되고 있다.

규장각 전시실 재개관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전시실이 다시 문을 열었다. 규장각은 8종의 국보, 26종의 보물, 5종의 세계기록유산, 30만 점에 달하는 고도서·고문서를 소장하고 있는 국내 최대 고문헌 소장처이다. 『조선왕조실록』, 『승정원일기』, 『동의보감』 등의 원본 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만큼, 꾸준히 일반 관람객 대상 전시실을 운영해왔다. 그러나 코로나19 유행 상황이 심각해지며 전시실 운영이 중단되었고, 긴 휴식기를 가진 뒤 다시 전시실을 개방했다. 다만 관람 희망일 최소 1일 전에 규장각 홈페이지를 통한 사전 예약이 필요하다. 전시 관람 예약 페이지에서 관람 날짜를 선택한 뒤, 자유관람을 원한다면 ‘자유관람 예약’, 도슨트 전시 해설을 원한다면 ‘안내예약’을 하면 된다.

SNU 배곧 아트큐브 개관



시흥캠퍼스에 위치한 전시관 ‘SNU 배곧 아트큐브’가 개관했다. SNU 배곧 아트큐브는 시흥캠퍼스 교육협력동 1층 로비에 마련된 전시관으로, 캠퍼스 내 유휴공간을 문화적으로 재생해 시민에게는 문화향유의 기회와 삶의 가치를 높이고 지역예술가에게 창작발표 기회를 넓히고자 구축된 문화공간이다. 시흥시와 서울대는 지역의 다양한 교육 수요를 충족시키고 차별화된 교육을 제공하는 등 교육협력을 지속해왔으며, 이번 SNU 배곧 아트큐브 개관은 교육협력을 넘어 문화협력의 첫걸음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2월 14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된 개관전 ‘우리 시대 장인展: 나는, 시간입니다’는 시흥시의 발전상과 함께하고 지역예술가를 대표하는 지역 문화예술장인 3인의 작품 등 45점 내외로 꾸러졌다.

이주용, 최기주 문화관 리모델링기금 100억원 쾌척

서울대는 지난 12월 10일 서울대 문화관 리모델링기금 100억원을 쾌척한 이주용(53사회학과) KCC정보통신 회장과 부인 최기주 여사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서울대는 문화예술 진흥의 거점공간 조성 및 문화교류,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나아가 문화예술 분야 인재 육성 및 글로벌 문화콘텐츠 제작 등에 기여하고자 서울대 문화관의 재건을 추진해오고 있다. 오세정 총장은 모교를 향한 이회장의 관심과 성원에 감사를 표하며 “나눔과 배려의 삶을 기부의 선순환으로 실천하고 계시는 두 분의 큰 뜻이 서울대 구성원 모두의 마음속에 기억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주용·최기주 문화관 리모델링기금”은 서울대가 문화교류와 소통의 장으로 복합문화 공간을 조성하는데 소중히 사용될 것”이라며 문화관 블랙박스 공간을 이회장의 호를 따서 ‘운당홀’로 명명하기로 했다.



CIEL DESIGN

인간과 자연, 예술을 사랑하는 (유)시엘 디자인 입니다.

도시민들의 문화향유와 휴식공간 조성 등 인간과 자연의 공생을 통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우리기업 정신입니다.

시엘 디자인은 인간, 자연, 예술이 함께 어우러지는 통합경관디자인 실현을 위해 디자인 전문가들의 지혜를 모아 새로운 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 소 : 전북 김제시 두월로 279-12
1공장 : 김제시 봉황공단2길 78-37
2공장 : 충남 논산시 연무읍 황화로 119-21

전 화 : 063-547-3200
H . P : 010-4653-6863
E-Mail: ciel3200@hanmail.net

(유)시엘 대표 김형기 청동, 알루미늄, 스텐 주물, 원형 점토 작업, 석조각, 제작 시공 업체

서울대총동창회 소식

173차 상임위원회 개최



서울대총동창회(회장 이희범)가 지난 12월 8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173차 상임위원회를 개최했다. 회장, 상임부회장, 부회장 및 사무총장으로 구성된 상임위원회는 사업계획 수립과 예산 승인, 회비 및 부담금의 결정, 고문 및 명예회장 추대, 회장추대위원회 규정 및 사무처 운영규정 제·개정 등에 대한 승인 등 기타 주요한 사항을 의결한다. 이날 상임위원 32명이 참석하고 66명이 위임장을 보내왔다. 이날 2022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과 회장추대위원회 규정안의 두가지 안건이 상정됐다. 1호 안건인 2022년도 총동창회 예산은 전년 대비 7200만원 증가한 22억5600만원으로 책정됐다. 총동창회의 4대 주요 활동 목표인 △평생 학습하는 동창회 △취미와 함께 즐기는 동창회 △회원 복지를 증진시키는 동창회 △국가·사회에 기여하는 동창회가 작년과 올해를 거쳐 정착됐다고 보고, 2022년도에는 이러한 4대 목표를 더욱 활발하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코로나로 어려웠던 해외·지방지부 교류도 활성화시

킬 예정이다. 2호 안건으로는 회장추대위원회규정안이 상정됐다. 6월 총회에서 의결된 회칙개정안에 따르면 회장추대위원회는 회장이 지명하는 부회장 12인 이내와 당연직 부회장(각 대학·대학원동창회장) 12인 이내, 모교 총장이 지명하는 3인 이내 등 총 27명으로 구성하게 된다. 총동창회는 이날 회장추대위원회 규정의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고 상임위원회의 승인을 구했다. 참석자들은 회장추대위원회 구성 중 각 대학·대학원동창회장 가운데 선출하는 12인을 중심으로 인원과 선출 방법 등에 대해 활발하게 의견을 개진했다. 이날 총동창회는 △2020~2021년도 총동창회 활동실적 △동문 기부 미술작품 현황 △역사연구기록관 건립 등에 대해서도 보고했다. 내년 중점사업으로 관악경제인회(가칭)가 결성돼 내년 2월 중 첫 모임을 가질 예정이다. 관악캠퍼스 75동에 들어설 역사연구기록관은 2024년 4월 완공을 목표로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했다. 지난해 발족한 사회공헌위원회도 활동을 시작한다. 어려운 환경에 처한 동문과 자녀, 모교 어린이병원 난치병 환자, 소외계층 초·중·고교생 등 지원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장학 기부 40억원 전년대비 4배 '꺽충'

올해 서울대학교총동창회 장학금 기부액이 39억8000만원을 기록했다. 지난 1월부터 12월까지 모인 기부금으로, 전년대비 약 4배 늘어났다. 본회가 장학빌딩 건립기금을 모금하던 당시를 제외하면 역대 연 기부액 중 최고치다. 2년째 코로나를 겪으면서 사회 전반에서 개인 기부가 위축됐지만 장학금은 오히려 더 모였다. 1000만원 이상 고액 기부자는 작년의 두 배인 27명에 달했고, 5000만원 이상 기부자가 설립하는 특장학회 6곳이 새로 생겼다. 관악회는 2021년 모교 학술연구지원금으로 모교 명예교수협의회 등에 1억원을 지급했으며, 재학생 1133명을 장학생으로 선발해 총 28억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

제24회 서울대학교총동창회 관악대상 후보자 추천 안내

총동창회는 매년 모교와 총동창회의 발전뿐만 아니라 사회 각 분야에서 훌륭한 업적을 쌓아, 국가와 사회에 공헌하여 명예를 드높인 동문 또는 단체에 「관악대상」을 수여해 오고 있습니다. 2022년도 제24회 관악대상 후보자(단체)를 아래와 같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 추천 대상

- 모교와 총동창회 발전을 위해 유무형적 헌신과 봉사로 기여한 분 또는 단체
- 인류사회와 국가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훌륭한 업적을 쌓아, 모교와 총동창회의 긍지와 명예를 드높인 분 또는 단체

●후보 추천

- 추천방법 : 추천 서식에 맞춰 후보의 공적 및 주요활동 사항을 작성하여 총동창회 사무처로 제출
- 추천기한 : 2022년 1월 31일(월)까지
 - * 추천 서식은 총동창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 *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수상자 선정 및 시상

- 수상자는 2022년 3월 중 관악대상 운영위원회 심사를 거쳐 선정하여, 2022년 3월 25일(금) 정기총회에서 시상합니다.

●문의 및 접수처

- 서울 관악구 관악로 1, 940동 415호(신림동, 서울대학교 연구공원 본관)
- 서울대학교총동창회 (담당자 : 02-879-8214)
- 대표전화 02-702-2233, 팩스 02-703-0755, 이메일 member@snu.or.kr

2022. 2월 신년인사회 겸 조찬포럼

- 일시 : 2월 10일 (목) 오전 7시 30분
- 장소 : 플라자호텔 11층 그랜드볼룸

●강연자 및 주제

- 1주제 : 국무총리·동창회장·총장 '2022년도 국정·동창회 학교 운영방향'
- 2주제 : 이순재 배우, 가천대 석좌교수 '나의 연기 인생과 리어왕'

●참가인원 : 200명 이내

●참가신청 : [성함, 단과대학(과정명), 휴대전화번호 기재] 후 참가비 입금
문자 1877-2039(전화수신불가) 팩스 02-703-0755 이메일 member@snu.or.kr

●참가비 : 5만원 / 1년간 40만원 (조찬 및 도서 제공)

- 참가비 계좌 : 신한은행 140-013-055991 예금주 서울대총동창회

2022. 2월 수요특강

- 일시 : 2월 23일 (수) 오전 7시 30분
- 장소 : SNU장학빌딩 2층 베리타스홀 (공덕역 8번 출구)
- 강연자 및 주제 : 미정
- 참가비 : 무료 (음료 및 도서 제공)

2022. 2월 등산대회

- 일시 : 2월 26일 (토) 오전 10시
- 장소 : 북한산 둘레길 8구간(불광역 > 진관사)
- 참가비 : 2만원 (중식 및 기념품 제공)

신청방법

- 신청기간 : 선착순 마감까지(문의 : 02-702-2233)
- 참가신청 [성함, 단과대학(과정명), 휴대전화번호 기재]
 - 문자 1877-2039(전화수신불가), 팩스 02-703-0755
 - 이메일 member@snu.or.kr로 접수
- 참가비 : 신한은행 140-013-055887(서울대총동창회)
 - 입금시 성함과 입학연도 표기
- 신청문의 : 서울대학교총동창회 대표전화 02-702-2233
- * 모든 행사는 평생회비 또는 올해 동창회비를 납부한 분만 신청 가능

회비입금내역(2021.12.1-12.23)

정성껏 내주신 회비와 찬조금은 동창회와 동문들을 위해 소중하고 투명하게 사용하겠습니다!

연회비	회원	3만원(평생회비30만원)
	임원	회장 100만원
		부회장 30만원
		이사 10만원
찬조금		상시 환영

납부계좌 : 농협 301-0252-4434-51 권영걸(서울대미대동창회)
회비납부시 성명·학번·학과를 명시하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총동창회비는 별개이오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찬조금

- 신경희(84서양)유족 600,000원
- 강요배(72회화) 600,000원
- 서도식(74응미) 600,000원

연회비

- 이사 100,000원
- 이경석(84산미)

동창회 SNS

본회는 회원과의 소통을 위하여 네이버밴드·인스타그램 등 SNS계정(명칭/서울대학교 미술대학 동창회)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입하시면 동창회 소식 및 공지사항, 동문동정 등을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밴드 가입 시 전시, 행사, 애경사를 직접 올려 알리실 수도 있습니다. 가입시 회원인증을 위해 ID를 실명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ID예:김홍도(98동양)

축하기 · 근조기 안내



회원 및 회원가족의 결혼, 상 등 경조사시 축하하기나 근조기를 보내드리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축하기와 근조기는 모든 회원께 무상 제공해 드리는 것이 바람직하나 아직은 동창회 재원부족으로 당사자가 본인인 경우 외에는 요청하시는 회원께 배송비(지정업체 위탁)를 받고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회원님들의 너그러운 양해 부탁드립니다.
신청전화: 02-555-19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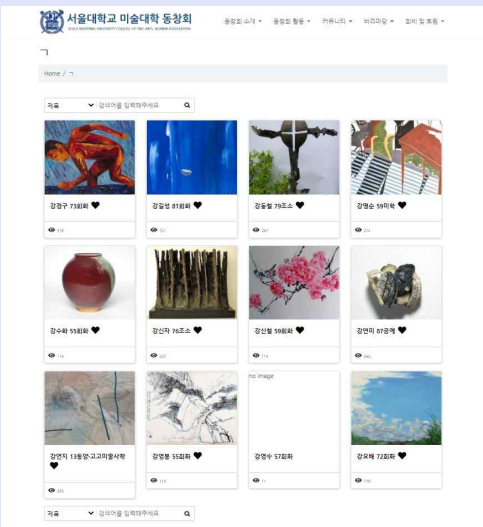
소식지를 휴대폰으로

본회는 매월 온라인소식지 E-NEWS를 발간해 메일로 발송합니다. 휴대폰에 메일 어플리케이션(네이버메일, 다음메일 등)을 설치하시면 편하게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소식지를 통해 전시, 행사나 경조사 등을 알리고 싶으신 동문께서는 동창회메일(snuarta@naver.com)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회는 홈페이지와 소식지에 비즈코너를 마련해 동문들의 사업체를 소개해 선후배간 도움을 나누고자 하오니 사업체를 운영하고 계신 동문께서는 동창회

메일(snuarta@naver.com)로 성명(학번.학과), 사업체 명칭과 소개글, 이미지, 연락처, 홈페이지 주소 등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아카이브에 게재해드립니다

본회 홈페이지(snuart.or.kr) 아카이브에는 현재 1000여명의 작품 및 약력이 게재되어 있으며 방문횟수는 1일 최대 780회, 1일 평균 100여회를 기록, 지금까지 총 5만5천회에 이르고 있습니다. 게재대상도 기존의 시각예술작품 외에 영화, 공연, 저서 등 창작물은 물론, 운영 사업체나 프로젝트 등 실적물까지 확대해 전 동문의 아카이브를 제작 중입니다. 자료를 보내주시면 아카이브에 게재해드리고 기존 업로드 되어있는 회원님들은 요청시 수정, 보완해드립니다.



게재신청

메일주소: snuarta@naver.com
자료: 이름(학번/과), 약력, 창작물이나 사업관련 이미지(3장)와 캡션
게재대상: 금년도 회비납부회원(납부안내는 본 페이지 왼쪽상단)
문의 : 02-555-1946

동창회 전화번호가 02-555-1946으로 변경됐습니다. 새로운 번호 1946은 모교가 창립된 해인 1946년을 기념하는 번호입니다.

제 16기

서강대 경제대학원

글로벌 EnH 최고위 과정

미래경영자를 위한

글로벌(Global), (Ethics), & (Humanity)

Genh.kr

서강대학교 글로벌 EnH 최고위 과정

02)705-7914 / genhsogang@hanmail.net

041107, 서울특별시 마포구 백범로 35,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 게페르트 남덕우경제관 글로벌 EnH최고위과정

초대의 글

안녕하십니까?

서강대학교 글로벌 미래, 윤리경영·인문학(G-EnH) 최고위과정에 초청합니다.

본 과정은 기업의 윤리의식, 사회적 책임과 준법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는 글로벌 기업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과 한국감사협회가 공동으로 마련하였습니다.

포스트 코로나와 바이든 시대, 대격변의 글로벌 환경에서 리더는 어떻게 미래를 개척해 나갈 것인가? 글로벌 경제와 준법 경영, 인문학과 건강을 융합한 G-EnH 최고위과정은 서강학파로 명성 높은 서강대학교 경제학과와 교수들과, 경영, 인문, 철학, 역사, 과학, 건강 분야의 저명한 인사들을 강사로 모 현대사회가 요구하는 글로벌지도자를 양성하는 과정입니다.

또한 본 과정은 최고 감사인으로서 요구되는 건전한 거버넌스 등의 필요 요소뿐만 아니라 인문학의 융합을 통한 윤리준법에 대한 가치관을 배양하는 글로벌 윤리경영의 최고 심화과정입니다. 이 과정에 동참하시어 그동안 배출된 1,000여 명의 저명하고 훌륭한 원우들과 함께 교류하면서 인적 네트워크를 넓히는 계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이 과정을 수료하신 분은 ‘ECA(Ethics Compliance Auditor)’ 회원자격이 부여되며 감사협회 회원인 경우 ‘윤리준법 감사사’ 자격증을 수여합니다. 귀하의 적극적인 참여와 동참을 환영합니다.

서강대학교
총장 박종구

한국감사협회
회장 문태홍

2021 세계수도문화연구 심포지엄 발표

권영걸(69음미)



지난 12월 16일 서울프레스센터 20층 프레스클럽에서 '서울, 세계 Top-5 도시 진입을 향하여'라는 주제로 서울의 도시경쟁력 제고를 위한 문제와 대책을 살펴보는 2021 세계수도문화연구심포지엄이 개최되었다. 대한민국헌정회·세계수도문화연구회가 주최하고 대한민국 국회와 서울시, 서울디자인재단(이사장 권영걸)이 후원한 이날 심포지엄에는 본 회 권영걸(오른쪽 사진 왼쪽에서 다섯번째)

회장을 비롯한 오세훈 서울시장, 김일윤 헌정회장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서울의 글로벌경쟁력 회복에 대한 심도 있는 진단과 해법을 제시하였다. 이날 권회장은 서울디자인재단 이사장으로서 서울의 도시경쟁력 문제와 대책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지난 10년간 서울의 도시경쟁력은 수직으로 추락했다. 서울시 예산은 20조에서 40조원대로 2배 증가했으나 부채는 6-7년 사이에 6조원이 더 늘어났다"고 지적한 권회장은 이어 서울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하여 "하드웨어적으로 열악했던 시절에 서울은 개발 사업을 많이 했다. 물적 인프라가 일정 수준 갖춰진 지금, 서울은 조셉 나이(Joseph Nye)가 말하는 소프트파워 도시로의 전환에 매진해야 한다. 물적 변화를 넘어 도시 생태성 지키기, 시민 창의성 높이기, 디지털 대전환에의 선제적 대응, 문화향유기회 확대, 시민행복 제고, 서울 고



유의 매력 창출등으로 서울을 소프트시티로 전환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서울은 이제 양(量)의 도시에서 질(質)의 도시로, 질의 도시에서 격(格)의 도시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회장은 서울의 비전을 크게 △계층 이동 사다리 복원·상생도시 △글로벌경쟁력 회복·글로벌 선도도시 △전면적 스마트시티로 재편·안심도시 △미래 산업기반 육성·미래 감성도시 4가지로 제시해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한편 권회장은 모교 졸업 후 미국 캘리포니아대학교 대학원에서 디자인 석사 학위를, 고려대학교 대학원에서 건축계획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모교 교수 및 학장, 서울대학교미술관 관장, 계원예술대학교 총장, (주)한샘 사장 겸 최고디자인경영자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본회 회장, 사단법인 에스아트플랫폼 이사장, 서울예술고등학교 교장, 서울디자인재단 이사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KIAF 전시기획팀장 김동현(99동양)

한국 미술시장은 성장하는 아이, 문제를 따지기보다 성장이 먼저
문제점만 부각하면 성장할 수 없어



김동현 동문은 모교 졸업 후 이화익갤러리에서 10여 년간 일하다 2018년부터 키아프(KIAF·한국국제아트페어) 사무국 전시기획팀장으로 일하고 있다. 국내 최대 규모이면서 한국 첫 국제아트페어라는 점에서 키아프는 한국 미술 시장의 성숙도를 알 수 있는 가늠자가 된다. 지난 10월 초 열린 <키아프 서울 2021>은 전 세계 10개국 170개 화랑이 참여, 입장객은 8만 8000여명, 판매액은 650여 억 원으로 지난 페어의 두 배에 달했다. 미술 시장의 활황을 견인하는 주체인 MZ세대가 대거 유입되어 많

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국내 미술시장을 어떻게 바라봐야할지 김동문이 매거진 TOPCLASS와의 인터뷰를 통해 밝혔다. 먼저, MZ세대의 미술시장 유입에 대해서 김동문은 'MZ세대는 IMF외환위기와 리먼브라더스 사태를 일찌감치 지켜봐 온 세대이다. 주식을 투기성으로만 생각하는 부모 세대와는 다르며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 수익의 양극화가 심해지고 취업난도 심각하다. MZ세대는 스마트폰을 끼고 살면서 발 빠르게 얻은 정보로 돈이 되는 곳에 뛰어든다. 투기가 아닌 투자의 개념이며, 시행착오를 통해 떠날 사람을 떠나고 남을 사람은 남을 것. 그렇게 조정을 겪으면서 미술 시장도 성숙해져간다고 본다고 견해를 밝혔다. 이에 더해 판단이 빠르고 과감한 MZ세대의 직관적인 선택으로 형성되는 가격에 대해 거품이라는 분석이 있지만 그 가치를 알아보는 눈은 나중에 평가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 미술시장과 컬렉터들에 대해서는 '그동안 아시아 미술 시장에서는 홍콩이 독보적이었으나 최근 홍콩이 중국과의 정치 이슈가 생기면서 그 대안으로 싱가포르, 한국, 일본 정도가 거론된다. 한국은 미술 시장의 열기, 국



제공항, 컨벤션, 음식문화 등 인프라가 훌륭하다. 또 일본이 자국 아트에 특히 집중하는 데 비해 한국은 국내외 작품을 두루 즐긴다는 평이 있어 아트비즈니스로 적합한 나라로 여겨지고 있다. 리만머핀, 페로탕, 페이스갤러리가 대형 국제 갤러리로는 처음으로 서울에 개관한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한국 미술 시장 전체 규모는 작은 편이지만, 컬렉터들은 어느 나라보다 강력하다. 이번 키아프 첫날에 VIP가 그렇게 많이 오신 것도 그렇고, 홍콩 바젤 현장에 가면 한국인 컬렉터들이 워낙 많아서 한국 같다. 더 불어 최근 컬렉터의 저변이 확대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최근 미술시장의 변화에 관해서는 '한국 미술시장은 조금씩 성장 중이다. 자금이 유입되고 관심을 가지는 대중이 늘어나는 첫 단계이다보니 투기성으로 들어오는 이들도 있지만 이는 과도기가 거쳐야 할 과정이며, 그런 일련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모두가 만족할 만큼 안정적이고 깨끗한 미술시장이 정착되는 건 쉽지 않다. 금융시장도 시장이 커지면서 문제점이 부각되면 대책을 마련하고 규제 방안을 고심하면서 건강한 시장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5000억 규모의 미술시장에서는 문제를 따지기보다 성장이 먼저이며 지금 수준에서 문제점만 부각하면 첫 단추를 꿰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한국 미술시장을 성장하는 아이처럼 바라보고, 잘하는 부분은 칭찬하고 잘못된 부분은 야단치고, 문제가 보이면 관심을 갖고 해결하고자 해야 한다. 애정 어린 관심으로 우리 모두의 문제라고 인식해야 다음 세대가 문화강국 대한민국을 맞이할 수 있다고 관심과 애정을 강조했다. 한편 내년 9월 키아프는 세계 2대 아트페어인 프리즈(Frieze)와 공동개최예정이다. 한국의 갤러리와 작가를 세계에 알리고 파트너로서 최고의 성과를 낼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힌 김동문은 수준에 비해 가격이 저평가되어있는 한국 작가들이 있다면 글로벌 컬렉터들의 눈에 들어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정희 고문 별세 홍정희(65회화/1942-2021)



본회 홍정희 고문이 지난 12월 19일 별세했다. 빈소는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으며, 홍고문의 부고 소식에 많은 동문들이 슬픔을 전했다. 홍동문은 모교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미술관, 신세계 갤러리, 갤러리현대, 예화랑, 조현화랑, 현대화랑, 뉴욕 UN갤러리, 런던 Logos갤러리 등 국내외에서

다수의 초대전에서 꾸준히 작품을 선보여왔다. 대한민국미술대전 문화공보부 장관상, 한국미술대상전 특별상, 중앙미술대전 장려상, 석주미술상 등을 수상했으며, 석주미술상 심사위원, 한국여성단체협의회 출판공보위원, 본회 부회장, 유영국문화재단 감사, 경운회박물관 고문 등을 역임했다. 홍고문의 작품은 한국 국립현대미술관(과천), 서울시립미술관, 서울대학교미술관, 워커힌미술관, 호암미술관, 경운회박물관, 광림교회와 미국 링컨도서관, 링컨시청, 미시건대학교 뮤지엄, 영국 대영박물관, 아랍에미리트 두바이박물관 등에 소장되어있다.

서울대에 발전기금 100만달러 기부 백훈(61응미)

백훈(사진 오른쪽) 동문과 한홍택(서울대 기계공학과졸) 캘리포니아주립대 명예교수가 서울대학교에 발전 기금 100만달러를 약정하고 매년 10만불씩 출연하기로 했다. 지난 12월 8일 서울대는 오세정 총장을 비롯한 교내 주요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줌(Zoom)을 통해 백동문과 한교수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이들이 전달한 이번 발전 기금은 공과대학 기계공학부에 '한백 장학기금'으로 매년 공대학생 2명과 기계공학부 학생 2명을 선발해 4년 전체 장학금으

로 쓰일 예정이다. 오세정 총장은 "후학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해 주신 송고한 나눔은 서울대학교 구성원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고 또한 출연해 주신 '한백 장학금'은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학생들이 지성과 품성을 겸비한 우수 인재로 성장하는데 소중하게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중앙대에 발전기금 1억기부 심문섭(61조소)

중앙대 명예교수인 심문섭 동문이 지난 12월 10일 조소전공 학생들을 위해 써 달라며 중앙대학교에 1억원의 발전기금을 기부했다. 심동문은 프랑스파리 청년비엔날레, 베니스비엔날레 한국대표작가 초청 등 활발한 국제행사 활동을 선보이며 한국 현대조각의 대가로 자리매김했다. 일본 하코네헨리무어대상전 우수상, 한불문화상, 프랑스예술문화훈장 등을 수상했다. 모교를 졸업하고 활발한 작품 활동으로 주목받던 심동문은 중앙대에 임용돼 23년간 후학양성에

힘썼으며, 재직 당시에도 발전기금을 꾸준히 기부하며 중앙대에 대한 애정을 드러낸 바 있다. 심동문은 "졸업한 이후 힘들고 외로운 작가 활동을 하게 될 학생들에게 힘을 북돋아 줘야겠다고 생각했다. 학생들이 자긍심과 자부심을 가지길 그리고 조소전공이 더욱 발전하는 계기를 가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철조망 바이러스 장소현(65응미)

시인이자 극작가인 장소현 동문의 짧은 이야기 모음집 '철조망 바이러스'가 출간됐다. 희곡을 발표하며 극작가로서 활동한 50년을 자축하고자 펴낸 '철조망 바이러스'는 이민생활의 애환, 청춘 시절의 추억, 죽음에 대한 생각 등 다양한 소재를 형식에 묶이지 않고 자유롭게 쓴 글을 모은 책이다. 34편의 짧은 이야기가 네 개의 마당으로 나뉘어 수록되어 있고 글 사이사이에 김인경 사진작가의 나무 사진이 함께 실려있다. 한편 장동문은 모교를 졸업하고 일본

와세다대학교 대학원 문학부를 졸업했다. 현재 미국 로스엔젤레스 한인사회에서 극작가, 시인, 언론인, 미술평론가 등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시집, 희곡집, 칼럼집, 소설집, 콩트집, 미술책 등 26권의 저서를 펴냈고, 50편의 희곡을 미국과 한국에서 발표 및 공연했다. 미술 관련 저서로는 『거리의 미술』, 『에드바르트 뭉크』, 『아메데오 모딜리아니』, 『그림이 그림다』, 『그림은 사랑이다』 등이 있으며, 제3회 고원문학상과 제4회 미주가톨릭문학상을 수상했다.



아침이슬노래비 설립 김민기(69회화)

민주화운동 현장에서 빠지지 않고 불리던 노래인 김민기 동문의 '아침이슬' 탄생 50주년을 맞아, 강북구가 수유동 국립4.19민주묘지 앞 무궁화공원에 노래비를 건립했다. 아침이슬은 김동문이 1970년 작곡, 1971년 발표한 노래다. 1975년 금지곡으로 지정됐다가 1987년 6월 항쟁 이후 제한조치가 풀렸다. 박경수 강북구청장은 "유신시절부터 광주민주화운동 이후 '임을 위한 행진곡'이 나오기 전까지는 대학가에서도 시위현장에서도 아침이슬이었다"고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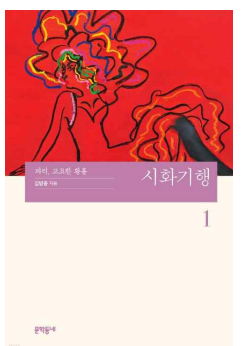
스테인리스강 재질로 만든 둥근 알 형태 노래비 앞면에는 김동문의 약력과 친필 악보가 새겨졌으며, 뒷면에는 노래가 만들어지게 된 배경 설명이 들어갔다. 노래비가 자리 잡은 무궁화공원의 명칭은 곧 아침이슬공원으로 바뀐다. 박강북구청장은 "4.19 민주묘지와 노래비를 필두로 4.19사거리 일대를 민주화의 기억을 되살리는 특화거리로 꾸미겠다"고 말했다.



시화기행1 출간 김병중(74회화)

김병중 동문이 신작 『시화기행1』을 출간했다. 전작인 『화첩기행』이 국내 예인들의 자취를 글과 그림으로 풀어갔다면 『시화기행』은 그간 써온 시와 함께 유럽 등지로 장소를 옮겨가 새로운 여정을 시작한다. 단지 예술가들의 흔적만 살피는 게 아니라 그들이 재능을 키워간 도시에도 초점을 맞춰 공간과 예술가의 유기성을 김동문만의 섬세한 사유로 전한다. 한편 김동문은 모교와 동대

학원에서 동양화를 공부하고 서울, 파리, 시카고, 브뤼셀, 도쿄, 바젤 등지에서 수십 차례 개인전을 가졌으며, 국제아트페어와 비엔날레, 트리엔날레 등에 참여해왔다. 대한민국문화예술상, 미술기자상, 선미술상, 대한민국기독교미술상, 안견미술문화대상, 대한민국문화훈장 등을 받았다. 서울대 미대 학장, 서울대 미술관장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서울대 명예교수, 가천대 석좌교수로 있다.



기독교예술대상 수상 오의석(74조소)

오의석 동문이 지난 12월 4일 한국기독교문화예술총연합회(한문예총 회장 김소엽)에서 주최하는 '2021 대한민국 기독교예술 대상'을 수상했다. 문화, 영화, 음악, 서예, 출판, 무용, 사진 등 여러 장르로 나누어 수상식이 이루어졌으며, 오동문은 미술부문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오동문은 "40년동안 말씀과 형상 사이에서, 때로는 접점에서 양보하고 창작하며 저술을 했다"며 "이렇게 귀한 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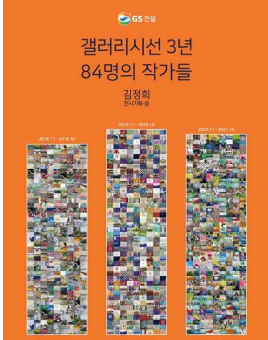
리에서 명예로운 상으로 격려해주셔서 감사하다"고 전했다. 한편 오동문은 모교와 동대학원을 졸업하고 합동신학대학원과 경북대 대학원에서 학위를 취득했다. 국내외에서 26회의 개인전을 열었으며, 미국 Calvin대학 미교환교수, 중국 연변과학기술대학 건축예술학부 연구교수, 대구가톨릭대 미대학장 및 디자인대학원장을 역임했다.



김정희 동문 E-Book 출판 김정희(77회화)

김정희 동문이 GS건설 본사 건물에 있는 갤러리시선에서 3년간 운영한 공모 기획전을 토대로 84명의 작가에 대한 내용을 책으로 출판했다. 김동문은 "유동 인구가 많은 회사 건물 안에 공간을 마련하고 젊은 미술가들의 작품을 전시해, 직원은 물론 건물을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작품 감상 기회를 제공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e-book은 GS건설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다. 해당

기획전은 20-30대 작가 대상으로 매년 1월 즈음에 지원자를 공모하고 있다. 또한 김동문은 올해 12월부터 그랑서울타워1에 있는 <아트 인 그랑 서울>에서 2개월 간격으로 40대 작가의 초대전을 기획하며, 포트폴리오는 항시 접수된다. 한편 김동문은 부모님 이름으로 5천 만원을 기부하여 서울대학교 관정도서관 4층에 개방형 그룹스터디룸이 만들어진 바 있다.



동학농민혁명 동상제작 임영선(79조소)

임영선 동문을 중심으로 구성된 '불멸, 바람길' 작품 제작팀이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정읍시가 향토현전적 내 친일 조각가 김경승이 제작한 전봉준장군 동상을 철거하고, 전 국민의 뜻을 모아 동학농민혁명 정신을 부각할 수 있는 새로운 동상을 제작하기로 한 것이다. 새롭게 건립되는 동학농민혁명 동상은 고부에서 봉기를 시작으로 한 동학농민혁명군의 행렬 이미지를 담은 군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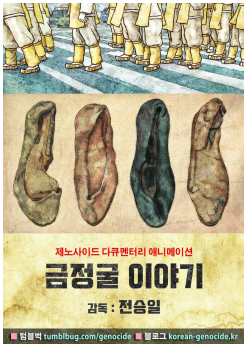
조각이다. 유진섭 정읍시장은 "동학농민혁명의 사상과 시대정신을 보여주는 작품이 탄생하길 기대한다"며 "날씨가 추워지는 만큼 건강에 유의하면서 작품 제작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해당 동상은 2022년 정읍에서 열리는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식(5월 11일)에 맞춰 제막식을 가질 예정이다.



해외영화제에서 호평 전승일(85서양)

전승일 동문의 애니메이션 '금정굴 이야기'가 해외영화제에서 연이은 호평을 받으며 허밍버드국제영화제, LA독립단편영화제, 어라운드국제영화제, 베를린에술영화제, 부다페스트영화제, 도쿄국제단편영화제, 베이징영화제, 뭄바이국제단편영화제 등에서 상영작으로 선정되었다. 금정굴은 일제강점기에 금 채굴을 목적으로 만들어졌던 수직 갱도로, 1950년 10월 한국전쟁 당시 수백명의 주민들이 경찰에 의해 집단학살되었던 장소이다. 7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유족

들이 트라우마로 고통 받고 있는 금정굴 학살사건을 토대로 전동문은 사유의 확장과 진실에 대한 새로운 예술적 관점을 제시했다. 한편 전동문은 애니메이션과 과학융합예술 분야에서 창작 및 저술을 해 왔으며, 1992년부터 현재까지 29년동안 독립 애니메이션을 비롯하여 30여회의 오토마타&키네틱 아트 관련 전시를 했다. 제노사이드와 트라우마에 대한 예술적 성찰과 치유에 깊은 관심을 갖고 활동을 이어오는 중이다.



드림그림 재능기부 프로젝트 진행 노준(89조소)

노준 동문이 '드림그림' 장학사업의 재능기부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한성자동차의 '드림그림' 장학사업은 예술적 재능과 꿈이 있는 중고교 학생을 선발해 대학에 진학할 때까지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또한 매년 유명 아티스트와 함께 재능기부 프로젝트를 진행, 아티스트 및 장학생이 만든 작품을 기증하고 있다. 노동문은 장학생등과 협업해 나를 표현할 수 있는, 나의 친구가 되는 동물 캐릭터 작품을 제작했고, 이 작품은 축소된 조각품으로 서울시 어린이병원에 전달돼 환우들과 의료진에게 힐링의 메시지를 전달할 예정이다. 한편 노

동문은 아시아 작가 최초로 두바이 아부다비야와



조각공원에 작품을 영구 설치하고, 홍콩 하버시티, 한국 에버랜드 등 국내외에서 조각 작품들을 선보이고 있다.

국내최초 품격 작품포장 D-Pack의 시대가 열렸다

‘10kg이상 중량작품 포장가능’
‘박스는 100호까지 자유로이 맞춤제작’

작품의 운송과 보관을 위한 경제적이고 실용적인 박스 D-Pack이 출시됐다. 2019 글로벌아트페어싱가폴(대회장 권영걸)의 국내외 전체 작품운송을 책임졌던 이한호 대청해운 대표가 삼십여년의 대형 글로벌 운송경험을 바탕으로 작품포장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새롭게 개발한 제품이다. D-Pack은 플라스틱 소재의 포장박스로, 그동안 사용되어왔던 종이박스를 대체할 품격과 안전성, 내구성을 갖추었다. 또한 합리적인 가격과 맞춤제작 서비스를 제공하며 100호 이상의 대형작품도 가능하다.

연락처 : 02-783-70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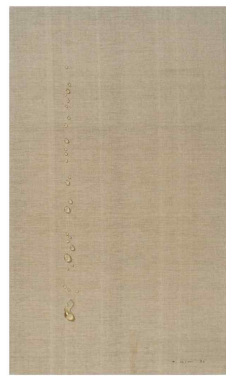
단색화의 거장 권영우(46회화/1926-2013)



작고한 단색화의 거장 권영우 동문의 다양한 작품 36점을 한데 모은 개인전이 국제갤러리에서 지난 12월 9일부터 오는 1월 30일까지 열리고 있다. 지난 2015년과 2017년에 이어 국제갤러리에서 세 번째로 열리는 권동문의 개인전은 파리 시기 (1978~1989)에 해당하는 백색 한지작품뿐 아니라 1989년 귀국 직후의 색채 한지작품, 패널에 한지를 겹쳐 발라 기하학적 형상을 구현한 2000년대 이후의 작품으로 구성됐다. 특히 채색작품은 이번 전시를 통해 대중에게 처음

선보였다. 한편 1946년 모교 1기로 입학해 동양화를 전공한 권동문은 전통을 중시하는 화단에서 1958년 초현실주의 화풍의 '바닷가의 환상'으로 국전에서 장관상을 타며 이단아로 불렸다. 그는 1962년부터 붓과 먹을 버리고 한지를 자르고 찢고 뚫고 붙이는 '종이의 화가'로 거듭났다. 이후 1978년부터 10여년간 프랑스 파리에서 머물며 작품 활동을 했다. 2000년대에는 나무 패널 위에 한지를 겹겹이 붙여 기하학적인 형상들을 구현함으로써 평면으로 회귀하는 동시에 회화가 지닌 평면을 지각하는 특유의 작업을 이어갔다. 윤혜정 국제갤러리 이사는 "이번 전시는 동양적 재료를 현대적으로 활용해 새로운 조형언어를 구축한 작가의 작업 궤적을 아우른다"며 "그가 단순히 동양화가라는 사실에 머물지 않고 부단한 실험의지로 무장한 동양적 정신과 기질의 화가로 어떻게 평가받고 있는지를 되짚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투명의 미학 김창열(48회화/1929-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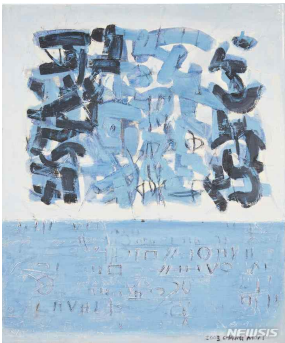
투명의 미학
The Aesthetics of Transparency

2021.
12. 7. -
2022.
3. 13. -
제주도립 김창열미술관
9월 21일

제주도립 김창열미술관은 지난 12월 7일부터 오는 3월 13일까지 김창열 동문 추모전 '투명의 미학'을 개최하고 있다. 이번 전시에서는 김창열 동문의 70여년간 화업 전 시기의 작품을 선보인다. 1주기 추모전은 △앵포르멜 시기 △미국 뉴욕 시기 △프랑스 파리 정착기 △물방울의 탄생 △회귀 △삶 속에 배어든 물방울 등 6개의 시기로 구성됐다. 1950년대 전쟁의 상처처럼 거친 표현을 담고 있는 앵포르멜 시기부터 1970년대 최초의 물방울의 탄생, 198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회귀 연작 등 김동문의 70여 년 화업 전

시기의 작품을 살펴볼 수 있다. 1주기를 맞아 7일 오후 3시에는 김동문의 생애와 작품세계를 주제로 파리스절 8년간 작품활동을 도왔던 유진상 교수의 특강이 진행됐다. 관계자는 "물방울처럼 '무(無)'로 되돌아간 김창열 화백을 기리는 이번 전시에서 많은 관람객이 그의 예술세계와 작품의 정수를 흠뻑 느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생전 물방울 화가로 유명했던 김동문은 영롱하게 빛나는 물방울과 동양의 철학과 정신을 상징하는 천자문을 캔버스에 섬세하게 쓰고 그리며, 회화의 본질을 독창적으로 사유한 한국 현대미술의 거장이다. 김동문은 국립현대미술관, 시마모토젠조미술관, 주드폼미술관, 중국국가박물관, 국립대만미술관 등 국내외 주요 미술관과 갤러리에서 60여회 개인전을 개최했다. 또한 프랑스와 한국을 오가며 양국 문화교류 저변 확대에 기여한 바를 인정받아 1996년 프랑스 문화예술공로훈장 슈발리에, 2013년 대한민국 은관문화훈장, 2017년 프랑스 문화예술공로훈장 오피시에를 받았다.

미지의 세계 장성순(48회화/1927-2021)



장성순 동문의 회고전 '한국추상미술의 선구자 장성순, 未知의 세계'전이 지난 12월 8일부터 13일까지 서울 인사아트프라자에서 열렸다. 1세대 추상화가인 장동문은 해방 이후 한국에서 미술교육을 받은 첫 세대로 한국 추상미술의 탄생과 전개에서 중심적 역할을 했다. 생전 장동문은 동양의 서예적 세계와 서양화의 구조적 전통을 절묘한 균형으로 완성한 작품을 선보였

다. 한국적이고 순수한 추상미술을 창조하고자 평생을 노력해 왔던 작품들은 '직관과 감성의 순수한 추상화'로 평가받고 있다. 장동문은 1927년 함경남도 함흥에서 태어난 실향민으로 30년 가까이 거주해 온 안산을 대표하는 화가로 활동해 왔다. 1948년에 모교에서 김창열, 이용환 등과 함께 수학했으며 1956년 현대미술가협회와 1962년 악뒤틀 창립에 참여, 50-60년대 한국 추상미술의 흐름을 주도했다. 1961년 제2회 파비엔날레에 한국 대표작가로 김창열, 조영익과 함께 출품했고, 1962년 동경비엔날레에 초대받았다. 2008년에는 조선일보미술관에서 회고전을 열었으며 2017년에는 안산시에 작품 207점을 기증했다. 2018년에는 제63회 대한민국 예술원상을 수상했다.

오윤 회고전 오윤(65조소/1946-198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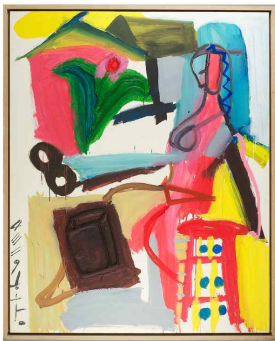


한국민중미술을 대표하는 오윤 동문의 회고전이 서울주 문화센터에서 지난 12월 17일부터 오는 1월 14일까지 열리고 있다. 단독으로 전시가 진행되는 것은 2017년 11월 울산문화예술회관 전시 이후 4년 만이다. 이번 전시는 1980년대 한국 민중미술을 이끌었던 판화가 오동문의 미술사적 의미를 조명해보고자 마련됐다. 오동문은 소설 '갯마을'을 쓴 오영수 소설가의 아들로 태어나 모교 조소과에서 공부했다. 예술가의 길을 걷기 시작하며 아버지로부터, 부산 동래 학춤의 '명무수'였던 조부로부터 예술적 영감을 전해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

다. 이번 회고전에는 오동문의 대표작인 '낮도깨비', '칼 노래', '탈춤'을 비롯해 판화, 유화, 드로잉, 테라코타 등 30여 점이 전시되었다. 오동문의 특유의 굵고 강한 선과 단순한 면처리를 통해 강렬한 역동성을 느낄 수 있다. 관계자는 "이번 오윤 회고전은 1980년대 격동의 미술 사조를 감상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밝혔다. 한편 오동문은 모교 조소과에 입학해 예술가의 길을 걷기 시작해 1979년 '현실과 발언' 창립에 함께했으며 지난 2005년에는 옥관문화훈장을 받았다. 오동문은 생전에 자신의 목판화 작품이 가능한 많은 대중에게 감상되길 위해 책표지화나 삽화용으로 작품을 싣기도 했다.



20주기 추모전 황창배(66회화/1947-2001)



황창배 동문의 작고 20주기를 맞아 추모전 '제2회 황창배를 기억하다'가 서울 동덕아트갤러리에서 지난 12월 15일부터 오는 29일까지 열리고 있다. 제자 김숙경, 박연옥, 이경주, 이보경이 운영위원으로 참여한 이 전시는 2022년 1월 17일부터 29일까지 금보성아트센터로 이어진다. 전시에는 김근중, 김선두, 김호연, 송수련, 오용길(65회화), 원문자, 유인수(66회화), 이길원(69회화), 이왈중, 임옥상(68회화), 정종미(76회화), 정종해(67회화), 홍순주, 황인기

(71회화) 등 그를 기억하고 사랑하는 작가와 제자 등 총 120명 작가들의 작품이 전시된다. 한편 황동문은 생전 '한국화의 테러리스트'라 불리며 한국화의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고 전통과 현대, 동양과 서양의 경계를 넘나들며 1990년대 '황창배 신드롬'을 일으켰다. 과감하고 실험적이고 자유분방한 작품들은 한국화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017년 김달진미술자료박물관이 기획한 '조명대야 할 한국화가' 1위로 선정될 만큼 재조명대야 할 작가로 꼽힌다. 모교 졸업 후 1977년 국전 문공부장관상, 1978년 국전 대통령상을 수상했으며 1997년에는 국내 화가 최초로 북한을 방문하기도 했다. 1999년부터 2001년까지 동덕여자대학교 초빙교수를 역임했고 2001년 담도암으로 타계했다.

가까이 오래 노숙자(62회화)·이정은(90동양)



모교 동문이자 모녀지간인 노숙자, 이정은 동문의 2인전 ‘가까이 오래’가 지난 12월 8일부터 오는 28일까지 이화익갤러리에서 열리고 있다. 노동문은 ‘꽃의 화가로 알려져 있을 만큼, 평생 화폭에 꽃을 그려왔다. 실제 대상을 직접 보고 관찰하여 그리는 사생의

방식을 따르는 노동문은 쉽게 볼 수 없는 귀한 야생화를 구해다 심기도 하고, 여러 종류의 꽃씨를 뿌려 키워서 꽃을 피워내기도 한다. 이동문은 자기 주변에서 일어나는 소소한 일상의 모습과 그 속에서 느껴지는 감정의 변화들을 차분하면서도 담백하게 그려내는 작업을 보여준다. 키우는 반려동물, 자신이 좋아하는 오브제, 작업실에 놓은 화초 등 이동문의 주변에 늘 함께 있고 위안을 주는 존재들은 자연스럽게 그림의 주제가 된다.



Find Your Light 서도식(74응미)



서도식 동문의 초대전 ‘Find your light’가 서울 방배동 유중아트센터에서 지난 12월 7일부터 17일까지 열렸다. 이번 전시에서 서동문은 은과 황동으로 제작한 단아하고 간결한 항아리 12점을 출품했다. 또 깊어가는 계절에 어울리는 ‘감’ 시리즈도 함께 선보였다. 올해 제작한 은과 황동 소재 항아리 신작은 조선시대 백자 대호(大壺) 형태를 띠고 있어 전통과의 묘한 대비를 이루는데, 특히 투명 옷

칠을 더해 반영구적 금빛을 얻어낸 일부 은 항아리 작품이 함께 어우러지며 다채로운 색감을 선사한다. “내게는 망치가 붓”이라 말하는 서동문은 공예라는 장르가 기술적, 기능적 측면에 얽매이는 것을 뛰어넘고자 부단히 노력해왔다. 그는 공예야말로 인간의 사유와 감성을 가장 감각적으로 밀도있게 표현해 낼 수 있는 예술장르라는 점에 주목하고 다양하고 도전적인 작업을 펼쳐왔다. 한편 서동문은 모교 졸업 후 동대학원에서 금속공예를 전공했다. 1991년 첫 개인전을 시작으로 다수의 개인전과 단체전을 가졌고, 건국대학교를 거쳐 1994년부터 2021년 초까지 모교 교수로 재직했다. 현재 문화재청 문화재위원,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이사장으로 활동 중이다.

도시의 흔적 서용선(75회화)



서용선 동문의 개인전 ‘도시의 흔적’이 서울 HC STUDIO에서 지난 12월 17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열리고 있다. 이번 전시는 서동문이 그동안 꾸준히 그려온 드로잉들 중에서도 해외 도시에서 이방인의 시선으로 바라본 이국의 사람들을 담은 드로잉을 모았다. 검은색 펜이나 연필로 빠르게

그린 ‘긋기 그림’은 단순하지만 강렬하다. HC STUDIO 허유림 디렉터는 “서용선의 ‘긋기 그림’은 작가가 세계 곳곳의 도시를 온몸으로 마주하며 더듬어낸 흔적들, 그것을 가장 첫 몸짓인 ‘긋기’로 드러낸 그림들을 한 자리에 모은 결과물이다. 이러한 ‘긋기’는 서구의 한정된 드로잉 개념을 벗어나며, 작가 개인의 고유한 표현을 탐구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동문은 모교와 동대학원에서 서양화를 전공하고 소나무시리즈, 역사화, 도시 풍경, 역사적 사건 등을 꾸준히 그림으로 그리고 있다. 모교 서양화과 교수와 독일 함부르크 국제미술아카데미 초대교수를 역임했으며 중앙미술대전 특선, 2009년 올해의 작가상, 2014년 이중섭 미술상 등을 수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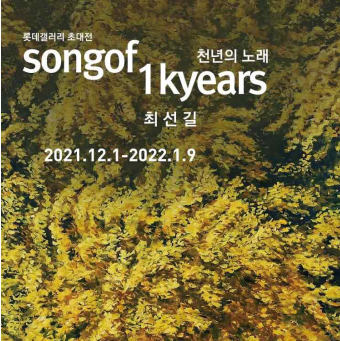
Mirrorscape 조덕현(76회화)

조덕현 동문의 개인전 ‘mirrorscape’가 지난 12월 11일부터 오는 2022년 2월 19일까지 송파 한미사진미술관에서 열리고 있다. 조동문은 이번 개인전에서 사진을 캔버스에 옮겨 그린 ‘사진회화’ 신작 30점과 거울을 이용한 대형 설치 작품 6점을 선보인다. 이번 전시의 핵심장치이자 작업 전반을 아우르는 열쇠는 거울이다. 조동문은 풍경사진을 거울로 채워진 공간에 배치하거나, 사진회

화 아래위로 거울을 설치해 이미지를 무한하게 증식시키는 방식으로 작품이 가진 서사를 증폭시킨다. 한편 조동문은 모교에서 학사와 석사를 졸업하고 1990년 동아미술제 대상, 1995년 올해의젊은예술가상, 2001년 제2회 한불문화상, 2019년 이인성미술상 등을 수상했으며, 이화여대 조형예술대학 서양화전공 교수와 일본 도호쿠 예술공과대학교 객원교수로 강의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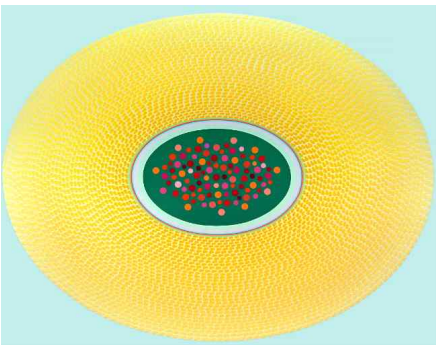
천년의 노래 최선길(80회화)



최선길 동문의 개인전 ‘천년의 노래’가 광주 롯데백화점갤러리에서 지난 12월 1일부터 오는 1월 9일까지 열리고 있다. 이번 전시는 유화 70여점으로 채워졌으며 그 중 절반은 최동문이 인생의 큰 스승으로 여기는 은행나무 앞에 앉아 그린 작품들로, 강원도 원주시 반계리에 있는 수령 800년이 넘는 은행나무(천연기념물 167호·높이 34m)가 겪

는 사계절을 담고 있다. 최동문은 “오랜 시간을 한 자리에서 견뎌내고, 외풍에 흔들리지 않는 은행나무는 내가 살아야 할 길을 알려줬다”며 “은행나무의 사계절은 성장하고 변화하는 인생을 닮았다”고 했다. 전시작 가운데 갤러리의 벽면 한 쪽을 가득 메운 6m 길이의 작품은 한껏 푸르른 색으로 채워졌다. 거대한 은행나무를 실제 보는 듯한 착각에 빠지게 하는 이 작품은 겨울 추위를 뚫고 갤러리를 찾은 관객에게 생생한 녹음을 보여주기 위해 최동문이 골랐다. 빛을 품은 다채로운 작품 속 녹색도 눈여겨볼만 하다. 최동문은 “녹색은 작가에게 까다로운 색이지만 대학 시절부터 즐겨 썼다”며 “은행나무를 두고 자리를 옮기면서 본 각기 다른 녹색들을 캔버스에 표현했다”고 소개했다.

Birth, Extinction, and Gratitude 이종숙(82회화)



이종숙 동문의 초대전 ‘Birth, Extinction, and Gratitude’이 세종갤러리에서 지난 12월 21일부터 오는 1월 2일까지 열리고 있다. 이동문은 자연 속에서의 삶 그리고 여행과 색채의 향연을 화폭에 펼치는 작업을 진행해 왔다. 이번 전시에서 이동문은 드넓은 평야와 산과 신비한 광경이 어우러진 바다, 계절마다 펼쳐지는 각양각색의 이야기들을 담은 40여점의 작품을 선보

인다. 이동문은 “나의 작업은 자연에서 출발한다. 그리고 그 안에서 끝없이 나의 삶을 여행한다. ... 보아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섬세한 소리, 향기 그리고 온몸으로 받아들이는 나의 마음이 함께 어우러져 시간이 흐를수록 깊어 간다. 그 감동의 공간 속을 머물다 보면 많은 것을 느끼고 깨닫게 되며, 이를 부단히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그 근원이 되는 순수한 진실에 다다르게 된다”고 말한다. 이동문은 광활한 자연과 주변에서 느끼는 감동을 내면에서 녹여내어 절제된 점, 선, 면 혹은 단순한 도형과 색을 사용해 응축된 강한 에너지와 힘을 표현해왔다. 한편 이동문은 모교 졸업 후 작가활동을 하다 결혼 후 잠시 공백기를 가진 뒤 현재 한울회, PENTAS, 창미회 등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국내외에서 다수의 개인전과 그룹전을 통해 작품을 선보이고 있다.

자작나무 숲의 친구들 채혜선(82응미)



영은미술관은 영은창작스튜디오 11기 채혜선 동문의 개인전 ‘자작나무 숲의 친구들 Friends in the White Birch’을 지난 12월 4일부터 오는 26일까지 개최하고 있다. 이번 전시는 전시 제목처럼 자작나무와 친구가 상징하는 무언가에 관한 이야기이다. 채동문 작품의 중심축을 형성하고 있는 자작나무는 오랫동안 이런저런 이유로 중단했던 작가로서의 새로운 시작이 그림 속의 자작나무처럼 곧게 뻗어나가길 바라는 희망과 채동문이 소망하는 삶의 이상향을 상징한다. 채동문의 작품 속 또 하나의 중요

아름다운 간섭 정혜레나(83조소)



정혜레나 동문의 개인전 ‘아름다운 간섭’이 지난 12월 8일부터 14일까지 홍천미술관에서 열렸다. 이번 전시에서 정동문은 차갑고 무거운 철판을 열에 녹여 새로운 자아의 탄생을 소망하는 작품들을 선보였다. 정동문은 작업노트를 통해 ‘노는 듯이 작업하고 작업하듯 시간을 쪼개어 산다. 쇠를 자를 때의 기분은 말할 수 없이 황홀하다. 그 단단하고 차갑고 무거운 철판이 열에 녹을라치면 여간 간사스러운게 아니다. 지조도 없고

유산 윤영화(84서양)



윤영화 동문의 개인전 '유산(聖所/Heritage-Sanctum)'이 지난 11월 20일부터 12월 23일까지 경북 예천 신품미술관에서 열렸다. 이번 전시회는 윤동문이 지난 30년간 작업해온 인간존재와 만물에 내재한 생과 사멸의 흔적인 '유산'에 대한 자연의 은유를 통해 표현한 성(聖)과 초월에 대한 예술적 사색의 중간 보고서 성격의 전시다. 주요 출품작은 '유산/Heritage'이라는 주제의 연작으로 '소금과 재'라는 마테리아로 존재의 성스러움을 나타낸 영상설치오브제 작품이다. 이

Okul [학교]_사람은 무엇을 배우나 함양아(87서양)



함양아 동문의 개인전 'Okul [학교]_사람은 무엇을 배우나'가 피비갤러리에서 지난 11월 4일부터 12월 11일까지 열렸다. 함동문은 국가와 사회 시스템 안에서 발생하고 있는 여러 문제들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그 답을 찾아가는 여정을 다양한 작업 형태로 담아오고 있다. 이번 전시에서는 '교육'이라는 제도의 중요성을 보다 미시적인 관

끝없이 돌아가는 길 김형관(91서양)

김형관 동문의 개인전 ‘끝없이 돌아가는 길’이 지난 11월 27일부터 오는 12월 24일까지 갤러리 소소에서 열리고 있다. 시각의 원리를 회화로 풀어내는 작업을 지속해 온 김동문은 이번 전시에서 그리는 행위에 집중한 작업을 선보였다. ‘대상과 의도 없이 그리기’를 시도한 그의 작업은 순수한 추상의 형태를 띠고 있다. 보기에 앞서 그리기 시작한 김동문의 작업은 공교롭게도 길을 닦은 많은 선들을 품고 있다. 짙은 직선과 빙글빙글 돌아가는 곡선 사이로 펼쳐지는 형태와 색은 자유롭게 이어지며 비로소 순수한 조형 자체를 보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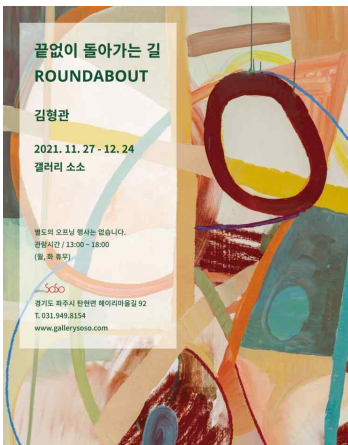
한 요소는 채동문의 삶에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룡키라는 반려견이다. 그림 속 중심 혹은 나무 사이사이 살며시 숨어있는 다양한 표정의 룡키는 채동문에게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에 대한 소중함과 애뜻함을 알게 해준 인생의 동반자이다. 룡키는 캔버스 위 자작나무 사이로 만나고 헤어지고,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청하기도 하는 등 여러 가지 관계를 맺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다. 채동문은 이런 룡키의 모습에 스스로를 투영시켜 일상 속 다양한 인물과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 모두의 것일 수도 있는 다양한 관계를 회화 작품으로 선보이고 있다. 채동문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연스럽게 맺게 되는 주변과의 다양한 관계에 대해, 거기서 느끼는 다양한 감정과 스스로의 다짐과 희망에 대해 이야기 한다. 인생의 다양한 감정을 담아내고 있는 채동문의 작품은 잔잔한 감동과 함께 바쁜 일상의 휴식 같은 시간을 제공한다. 한편 채동문은 모교를 졸업하고 8회의 개인전과 다수의 단체전을 가졌다.

뺏대던 성질은 온데간데 없이 유들유들함만 남아 애교가 여간 아니니... 그 대조적인 순간들을 즐긴다. 극과 극, 그 둘이 하나인 지점, 찰나가 주는 완벽에 가까운 조화는 단단함과 부드러움이 만나는 한 지점에서 카이로스적인 시간을 향유하게 한다. 나의 작업은 원형의 세계에 몰입하여 초월에 대한 보편적인 갈망을 드러낸다. 오래전, 종교와 삶이, 영혼과 일상이 분리되지 않았던 시절의 원론적인 감각들의 도출 즉 신성함의 드러남(hierophany)를 재현하려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지금 존재하고 이미 존재해왔고 그리고 앞으로도 존재할 그 무엇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동문은 모교 조소과와 강원대학교 예술대학원을 졸업했으며 현재 국민대학교에서 입체미술전공 박사와정을 밟고 있다. 2006년 이후 19회의 개인전을 열었고 160여회의 단체전에 참여했다. 현재 홍천미술협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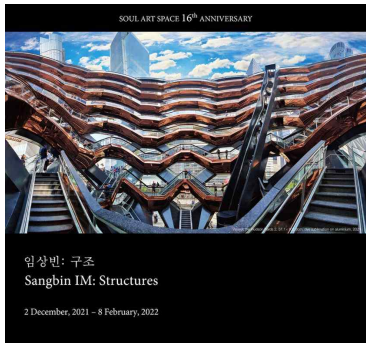
외에도 사진회화, 퍼포먼스 드로잉 등 20여 점을 선보였다. 윤동문은 "나의 예술의 목표는 재현과 표현, 이미지와 물질, 실재와 환영, 성과 속, 가시적인 것과 비가시적인 것, 가변성과 불변성 등 상극의 개념을 조정하고 화해 시켜 친밀한 관계로 이끌어 합일에 도달하는 데 있는 것"이라고 했다. 한편 윤동문은 모교를 졸업한 후, 파리2대학에서 조형예술학 학사와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프랑스 파리 팜테옹소르본대학교 예술대학원에서 박사과정을 수료하고 고신대학교 조교수를 역임했다. 윤동문은 2002년 파리에서 귀국한 뒤 최근까지 '회화의 재해석, 포토드로잉&포토편인팅'이라는 회화적 변용을 방법론적 전개방식의 주된 축으로 삼고 사진매체와 회화 간의 은유적 혹은 직설적인 미술어법의 조우를 통해 '회화적 사진, 사진적 회화'라는 명제의 본질적이고 가변적 위상의 가능성과 한계를 실험해 오고 있다. 현재 부산에서 활동하고 있다.

점에서 심도 깊게 조명한 영상과 이미지 설치 작업을 선보였다. 한국, 네덜란드, 터키 등 여러 지역에 거주한 경험을 토대로 세계 속에 국가 그리고 사회 시스템을 토대로 살아가고 있는 개인과 집단, 사회화되어 가는 자연에 대한 심도 있는 문제들을 작업으로 풀어오고 있는 함동문은 영상, 조각, 설치, 오브제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인간의 삶을 바탕으로 우리사회의 단면들을 독특한 시선의 내러티브로 드러낸다. 한편 함동문은 모교와 동대학원에서 회화와 미술이론을 전공하고 뉴욕대학원 대학원에서 미디어아트를 전공했으며, 2004년 다음작가상, 2005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올해의예술가상 등을 수상했다. 현재 서울과 암스테르담에서 활동하고 있다.

만든다. 한편 김동문은 모교와 동대학원에서 서양화를 전공하고, 런던 골드스미스대학에서 M.F.A.를 취득했다. 현재 모교 서양화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으며 학과장을 역임했다. 대표적인 개인전으로는 2017년 Brush Past(통인옥션갤러리), 2015년 Windows(갤러리로얄), 2014년 Linehouse(UNC갤러리) 등이 있으며,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은행, 경기도미술관, 부산시립미술관 등에서 김동문의 작품을 소장하고 있다.



구조 임상빈(95서양)



임상빈 동문의 개인전 '구조'가 지난 12월 2일부터 내년 2월 8일까지 서울아트스페이스에서 열리고 있다. 임상빈은 사진, 회화, 영상, 설치 등 다양한 장르를 다루며 이번 개인전에서는 사진과 회화를 함께 선보인다. 사진과 맞닿아있는 작업 과정이나, 아이디어 혹은 사진으로 나타내지 못하는 개념은 주로 회화로 표현한다. 사진

에서는 시각적 형태, 회화에서는 촉각적 질감에 집중해서 작업을 이어나가고 있다. 한편 임상빈은 모교 서양화과를 졸업하고, 미국 예일대학원에서 회화와 판화전공 석사과정을, 컬럼비아대학교에서 미술교육 박사과정을 마쳤다. 한국, 미국, 스위스에서 개인전을 가졌으며, 스페인, 홍콩, 대만, 아르헨티나 등에서 다수의 그룹전과 비엔날레에 참여했다. 국립현대미술관,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미술관과 줄리안스스미스미술관, 스페인 아티움미술관, 중국 도이치뱅크콘스트 등 국내외 유수의 기관에서 작품을 소장하고 있다. 현재 성신여자대학교 서양화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사진을 중심으로 다양한 매체의 작품 활동을 꾸준히 이어나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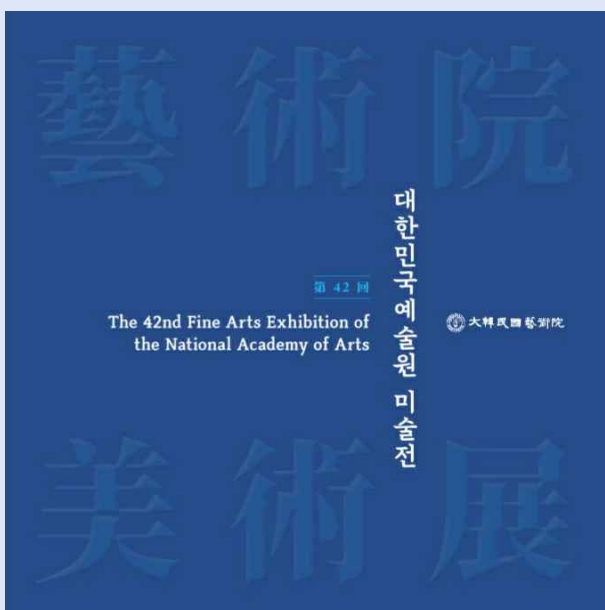
DDP 외벽 미디어파사드 메인 작품 박제성(98디자인)

박제성 동문이 지난 12월 17일부터 오는 1월 2일까지 열리는 '서울라이트'의 메인 작품을 선보이고 있다. 서울라이트는 DDP 외벽에 영상을 투사해 다양한 콘텐츠를 보여주는 미디어파사드 축제로, 2019년 12월 처음 시작돼 겨울철 서울을 대표하는 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올해 3회를 맞는 서울라이트의 주제는 '다시 뛰는 서울, 함께 하는 DDP'다. DDP 외벽에 구현한 메타버스 공간에 검정, 초록, 흰색, 빨강, 파랑 등 다섯 가지 색을 테마로 다양한 기법의 미디어아트가 12분간 펼쳐진다. 메인 작품은 박동문의 '자각몽-다섯가지 색'이다. 박동문은 이 작품을 메타버스와 미디어아트의 융합장르인 '메타바이오아트'로 규정하고, 메타버스와 인공지능(AI)을 통해 코로나19 사태로 다시 주목

받는 생명의 가치를 강조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18일에는 박동문을 모더레이터로 '예술이 바라본 메타버스의 삶, 몸, 그리고 뇌'라는 주제로 포럼이 진행됐다. 한편 박동문은 모교를 졸업하고 런던 로열칼리지오브아트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2010년 제32회 중앙미술대전 대상, 2016년 제1회 현대자동차 VH어워드그랑프리를 수상했으며 현재 모교 조소과 교수 및 학과장으로 재직하며 공간 설치 및 아트&테크놀로지 분야를 교육하고 있다.



제42회 대한민국예술원 미술전



한국 미술계 원로 작가들의 작품을 한자리에 모은 문화체육관광부 대한민국예술원의 '제42회 대한민국 예술원 미술전'이 지난 12월 1일부터 오는 24일까지 열리고 있다. 서울 서초구 대한민국예술원 전시실에서 열리는 이 전시에는 이종상(59회화), 송영방(55회화), 윤명로(56회화), 유희영(58회화), 정상화(53회화), 전뢰진(49응미), 최종태(54조소), 엄태정(58조소), 최의순(53조소), 이신자(50응미), 강찬균(57응미) 등 예술원 미술 분과 회원 17명과 고 서세옥(46회화) 동문의 작품까지 총 33점이 소개된다. 한편 대한민국 예술원은 학문과 예술을 사랑하는 전통을 계승한 대한민국 대표 예술기관으로,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보장하여 그 발전을 도모하고 과학자와 예술가의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해 제정 공포된 문화보호법'에 따라 1954년 7월 17일 창설되었다. 창설 당시 회원 정원은 25명이었으나, 몇 차례의 증원을 거쳐 1996년 대한민국예술원법 개정으로 회원 정원이 100명으로 확대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대한민국예술원은 '예술창작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예술가를 우대, 지원하고 예술창작활동 지원사업을 함으로써 예술발전에 이바지 한다'는 목적(대한민국예술원법 제1조)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왔으며 1979년부터 회원 작품전을 개최해왔다.



NewerArT
새 시대 아트 스튜디오

대표이사 유영래

Cell : 010-5229-4583

Tel : 031-902-1597

Fax : 031-901-1597

본 사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261번길 77 한신메트로폴리스 2층 207호
공 장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대길 105번길 96-6 가동

E.Mail : ssd88s@naver.com

Homepage : www.newerart.com

인스타그램 : @newerart_studio